

대선 전 개헌 불씨 되살리기

국민의당·한국당·바른정당 원내대표 회동 ... 단일안 추진 합의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국민의당 '6년 단임'

한국당·바른정당 '4년 중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헌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개헌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지난 17일 국민의당이 국회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헌법개정안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회동,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해 급급히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개헌전선을 구축해 민주당을 포위하는 모양새다.

최근 잇따라 공개된 정당별 개헌안 초안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국무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이양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를 제시했으며, 한국당은 이원정부제 외에 총리가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사실상 내각제를 함께 검토 중이다. 대통령을 국민직선제로 뽑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국민의당은 '6년 단임'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3당은 이번 대선에서 뽑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부터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도 공감하고 있다.

이밖에 불체포특권 폐지를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 총리에 대한 건설적 불신임제와 대통령의 국회 해

산권 인정 등 의회와 행정부 간 견제 방안들이 각 개헌안에 담겼다.

국민의당은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개헌안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오는 23일께 각각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당지지는 물론 소속 후보가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당 소속인 문재인 전 대표가 여유있게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활성화할 경우 대선정국이 다른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정권교체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해 민주당이 앞서가는 대선지형에서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가 성사된다면 '개헌 대 반(反)개헌'의 새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내에도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당 개헌조선모임은 전날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과 면담해 '의원총회를 소집해 개헌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다. 물론 이들도 개헌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개헌파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는 대선 프레임이 바뀌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일부 주류 측 인사는 정권을 잡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개헌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개헌 논의를 주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금 개헌 논의를 하지 않으면 대선 후 개헌은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개헌의 최대 기회를 또다시 놓칠 수 있어 우리 당도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5·18 내용 광범위하게 다룬다 ▶6면

청년이 미래다-동네책방 파종모종

양지애·민희진·김대선씨 ▶18면



“사랑의 헌혈 나눔 동참하세요” 21일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에 참가한 북구청 공무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행사는 겨울철 헌혈 감소로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의회 “경도 1조 투자협약 계약서 공개하라”

도에 경도 개발 제안서·미래에셋 컨소시엄 계약서 등 요구

연륙교 지원 조항·투자 기간 등 명확히 밝혀 의혹 해소해야

전남도의회가 미래에셋 여수 경도 1조 원대 투자협약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광주일보 6·7월 1면, 8월 2면)에 대해 확인에 나섰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과의 협약 당사자인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경도 개발 안내서, 기업 제안서, 미래에셋 컨소시엄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애초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관광

문화위원회는 전면 공개가 어렵다면 의회 의장단 입회 아래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해 전남도와 개발공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도의회는 연륙교 지원 조항, 투자 기간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짚어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려고 공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과정에서는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전제로 연륙교 예상 건설비 620억원 가운데 50%는 국가가, 30%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20%는 미래에셋이 부담하기로 합의를 맺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관광

이 나왔다. 연륙교 설치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난 수 있는 데다 미래에셋은 연륙교 설치로 인한 지가 상승, 접근성 증가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고 도의회는 지적했다.

도의회는 2029년까지 투자를 완료하기로 하면서 투자기간이 12년이나 되는 데도 의문을 품었다.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참가 안내서에는 사업계획서상 사업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사와 계약체결 시 인수금액 납부는 36개월 내 완납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기존 리조트 회원권 기한이 2024년이나 만료돼 완공 시점이 그만큼 늦어졌다며 귀책사유를 스스로 인정하는 형국이다.

도의회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약서 등 공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2029년까지 미래에셋이 경도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와 관광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9일 체결됐다. 계약서만 수백 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1조원 대 여수 경도 투자 사업을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안건으로 상정해 경도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문화 기반시설 열악

100만 명 당 38개 전국 11번째...전남은 3번째로 많아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인구 10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가 38개에 그쳐 전국 시·도 가운데 11번째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3번째로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공개한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은 모두 2595개로 전년보다 76개(3.0%)가 늘었다. 문화기반시설에는 국립·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이 포함됐다.

지역별 시설 분포는 경기도가 492개로 가장 많고, 서울(356개), 강원(206개), 경북(196개), 경남(190개), 전남(181개), 충남(154개), 전북(149개), 제주(126개), 충북(126개), 인천(97개), 부산(87개), 대구(72개), 광주(56개), 대전(56개), 울산(39개), 세종(12개) 순이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당 시설 수를 보면 제주도가 202개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133개), 전남(95개), 전북(80개), 충북(80개), 충남(74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가 적은 데 비해 문화시설이 비교적 많은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구 100만 명당 시설 수가 가장 적은 곳은 부산(25개)이었으며, 대구(29개), 인천(33개), 울산(33개), 서울(36개), 대전(37개), 광주(38개), 경기(39개)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시설 수가 945개로 전체의 36.4%를 차지, 수도권 몰림현상이 여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일보 since 1952

65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

2017 트리오 광주공연 Music from PyeongChang

정명화 | 손열음 | 신지아



첼로 정명화



피아노 손열음



바이올린 신지아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 A석 33,000원

멋과 재능, 그리고 기교의 연주가

첼리스트 **정명화**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없는 테크닉

피아니스트 **손열음**

K-클래식의 대표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문의 (062)220-0541

예매 티켓마루(ticketmaru.co.kr/1588-0766)

주최 광주일보·아시아문화

제작 WCN WORLD CULTURE NETWORK